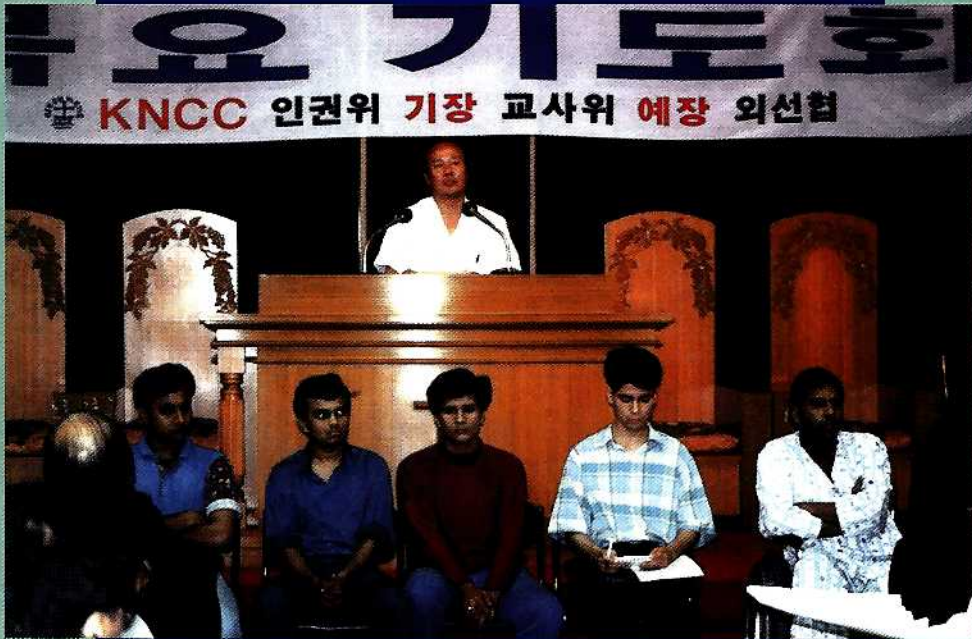


“
**고난받는 외국인 노동자,
 이제는 우리의 형제 · 자매로
 품어야 합니다**
 ”



▲ 6월 13일 NCC목요기도회에서 인도노동자들이 인권유린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와 김해성목사 석방을 위한 기독교 대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8호, 110-470 전화 · 744-3717 팩스 · 766-5528 천리안 · NCCHE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 예장(통합)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 여성교회 ·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한국교회인권센터

“외국인 노동자라 통칭되는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가난한 이방인’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던 우리들, 노동환경, 인간관계,
 문화적 차이, 인간적 모멸감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 우리는 이땅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싶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 세계화시대에 외국인노동자 보호는 교회의 선교사명입니다 -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레위기 19장 33~34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학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15만 명의 외국인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며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만주나 일본 땅에서 나그네로 산 적이 있습니다. 유엔도 1997년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해’로 정하고 외국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들을 우리가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지난 6월 3일 새벽 2시 4명의 인도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다 못해 모두가 잠든 시간에 회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들은 96년 3월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 후 3개월간 그들의 생활은 말그대로 ‘노예상태’였습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오후 3시, 오후 3시~저녁 11시, 저녁 11시~다음날 아침 7시까지 3교대 근무. 오전 8시간, 오후 8시간 이들은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식사시간은 고작 20분에 불과했습니다. 임금은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달에 4만원. 16시간 근무에 이들이 받은 평균임금은 5만원정도였습니다.

한달 월급 5만원에 하루 16시간 근무, 생활비 3만원 그리고 한달에 한번 휴일!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회사는 한국의 국경일에도 “너희는 한국사람이 아니니 쉴 수가 없다”는 어이 없는 말로 노동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외출과 외박은 물론 회사내에서 한국인과 대화 조차도 금지된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애쓰던 김해성목사와 양혜우집사를 구속!

지난 6월 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8명이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소장 김해성목사)에 난입하여 부인이 임신중절수술후 치료로 병원에 다녀오던 네팔노동자 부부를 강제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던 김해성목사와 상담소직원들이 몸으로 이들의 강제연행을 막았으나 출입국측은 막무가내였습니다. KNCC 인권위원회의 “네팔노동자 부인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차후 신고하겠으니 인도주의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는 간곡한 요청을 무시한 채 마침내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무장경찰 500명을 투입하여 100여명의 노동자,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김해성목사를 연행, 구속하였습니다.

정부의 대책 없는 외국인고용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의료보험, 노동법 등 아무런 법적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인권 상담소에 난입하여 목사와 교우를 연행, 구속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목회자의 직분으로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따뜻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 있던 김해성목사를 구속한 것은 소외받고 약한자를 위해 일하는 교회의 선교활동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정위선

우 · 편 · 엽 · 서

보내는 사람

□□□ - □□□

받는 사람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와 김해성목사
석방을 위한 기독교대책본부
(한국교회인권센터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708호

1 1 0 - 4 7 0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제정과 김해성 목사 석방을 위해 기도와 헌신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2.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서명용지 동봉되어 있습니다).
3.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제정과 김해성 목사 석방을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4. 관계기관(법무부, 노동부, 통상산업부 등)에 각 교회별로 항의서한을 보내 주십시오
 〈법무부, 노동부, 통상산업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 제2종합청사 427-760〉
5.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에 격려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격려해 주십시오
 (본 기독교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활동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0342-756-2144
 - 안산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0345-492-8785
 - 갈릴리교회 외국인노동자 선교회 02-857-9135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 상담소 02-708-4181
6. 이웃의 형제·자매들과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놓고 토론후 그들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생각하여 실천해 주십시오.

온라인 { 조흥은행 325-04-430489 최 의 팔 (외국인선교본부)
 국민은행 008-21-0684-655 최 의 팔 (외국인선교본부)
 농 협 027-02-200092 최 의 팔 (외국인선교본부)
 Tel. 744-3717, Fax. 766-5528

원위선

저는 외국인 노동자선교에 이렇게 동참하겠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 ()
2.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헌신예배 조직 ()
3.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치료비 지원 및
 무료급식, 침소제공 등을 위한 현금
 일시불 : 30,000 () 50,000 () 100,000 ()
 월 정 : 20,000 ~ 100,000 ()

* 앞면에 보내시는 분 주소, 성함, 연락처를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